



제17회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영제시조(嶺制時調) 정기 발표회



일시 : 2023. 12. 12.(화) 오후 3시
장소 :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103호

주최 : 영제시조 보존회 | 후원 :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연합회

본 팸플릿은 초대장을 대신합니다.

모시는 글



삼가 존चे금안 하심과 귀뎁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의 펜데믹 상황이 물러나 불안의 기운이 멀어져 가면서 경직되었던 사회도 서서히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또한 새로운 활력을 가지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며 마음의 여유를 조금씩 가집니다.

연말 훈훈한 사랑이 충만한 이즈음, 제17회 영제시조창 발표회를 갖게 된 것은 우리들의 단합된 모습이며 무한한 영광입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 영제시조창은 우리 영남의 전통을 잇는 하나의 굵은 맥입니다.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 망백望百을 바라보는 저는 제자들과 함께 영제시조창을 보존, 보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의 결실을 선보이고자 하는 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영제시조창을 아껴주고 이러한 발표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분들께 깊이 고개 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다복하고 즐거움과 행복함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
영제시조예능보유자 박 선 애





제17회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영제시조’ 정기 발표회

인사말씀

연주 순서 및 출연자 소개

[해설] 여영희, 최옥희

[대금] 황영달 [장구] 임규완 [촬영 및 편집] 김장열

- | | | |
|----------------|-------|--------------|
| 1. 산 넘고 또 산 넘어 | | 권순희 |
| 2. 백구는 편편 | | 허경순 |
| 3. 청산은 나를 보고 | | 손현숙 |
| 4. 먼 산에 황혼이 드니 | | 김영옥 |
| 5. 태산이 높다 하되 | | 자용, 정석교, 서영륜 |
| 6. 벽사창이 어른어른커늘 | | 김승향 |
| 7. 바람은 지동치듯 | | 여영희 |
| 8. 낮이 되면 | | 손익자 |
| 9. 청울치 미투리 | | 허화열 |
| 10. 살아생전 | | 전체합창 |



곡목 시조가사

1. 산 넘고 또 산 넘어 _ 권순희

산 넘고 또 산 넘어 임 계신 곳 찾아가세
넘은 산이 백(百)이언만 넘을 산이 천(千)가 만(萬)가
두어라 억(億)이나 조(兆)일지라도 찾아가리

2. 백구는 편편 _ 허경순

백구(白鷗)는 편편대동강상비(翩翩大同江上飛)하고
장송(長松)은 낙락청류벽상취(落落清流壁上翠)라
대야동두점점산(大野東頭點點山)에 석양(夕陽)이 비꼈는데
장성일면용용수(長城一面溶溶水)에 일엽어정(一葉漁艇) 흘러져어
대취(大醉)코 재기수파(載妓隨波)하여
능라도(綾羅島) 백운탄(白雲灘)으로 임기소지(任其所之)(하리라)

3. 청산은 나를 보고 _ 손현숙

청산(靑山)은 나를 보고 말 없이 살라하고
창공(蒼空)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하네
탐욕(貪慾)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물 같이 바람 같이 살다 가라 하네

제17회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영제시조’ 정기 발표회

4. 먼 산에 황혼이 드니 - 김영옥

먼 산에 황혼(黃昏)이 드니 강촌(江村)에 연기 인다.
종일토록 낚은 고기 주염주염 꺾어들고 징검다리 건너가
오두막 술집으로 돌아드는 저 늙은이
아마도 영욕(榮辱)이 무관(無關)이라 그를 부러워 (하노라)

5. 태산이 높다 하되 - 자용, 정석교, 서영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뒤흘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뒤흘만 높다 (하더라)

6. 벽사창이 어른어른커늘 - 김승향

벽사창(碧紗窓)이 어른어른커늘 임만 여겨 필쩍 뛰어 나가보니
임은 아니 오고 명월(明月)이 만정(滿庭)한테 벽오동 젖은 잎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휘여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맞초아 밤일세 망정 행여 낮이런들 남 우일뻔 (하여라)

7. 바람은 지동치듯 - 여영희

바람은 지동(地動)치듯 불고 구진비는 담어다 붓듯이 퍼붓는데
눈정에 그리던 님이 이 밤 삼경(三更)에 오시마하고 판처서 맹세를 하였건만
이러한 풍우중에 그어이 오시랴는고
진실로 오기 곧 오시랴이면 연분(緣分)인가 하노라

곡목 시조가사

8. 낮이 되면 _ 손익자

낮이 되면 일완다(一椀茶)하고 밤이 오면 일장수(一場睡)하고
청산(靑山)은 백운(白雲)과 더불어 함께 무생사(無生死) 설(說)하느니
그 누라 이 무애자연(無碍自然) 경지(境地)를 아는 이 있으리

9. 청을치 미투리 _ 허화열

청을치 미투리 육날신 신고 흑포장삼(黑袍長衫) 펼쳐 입고 석상에 고목되어
은근이 선 철쭉장 뿌리채 덤뽕 뽑아 모난 청석 위에 탈탈 털어
거꾸로 짚고 석경사(石傾斜) 험한 길로 눈을 연속 흘근흘근 좌우로 살피면서
징금징금 내려갈 제 그 우리임과 등산오유(登山遨遊) 하는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은 모두들 중이라 하네
백팔염주(百八念珠)는 목에다 걸고 단주(短珠) 손에 쥐고 금령가사(金鈴袈裟)
엇식 메고 염불설법(念佛說法)하는 양은 산중법사(山中法師)가 이 아닌가

10. 살아생전 _ 전체합창

살아생전 마음 비워 탄탄대도(坦坦大道) 수행하고
뜻있는 시우(詩友)들의 정성을 한데 모아
백세에 전하리라 우리 영판 시조를

제17회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영제시조' 정기 발표회



권순희



김승향



김영옥



김장열



서영륜



손익자



손현숙



여영희



임규완



자용스님



장순옥



정석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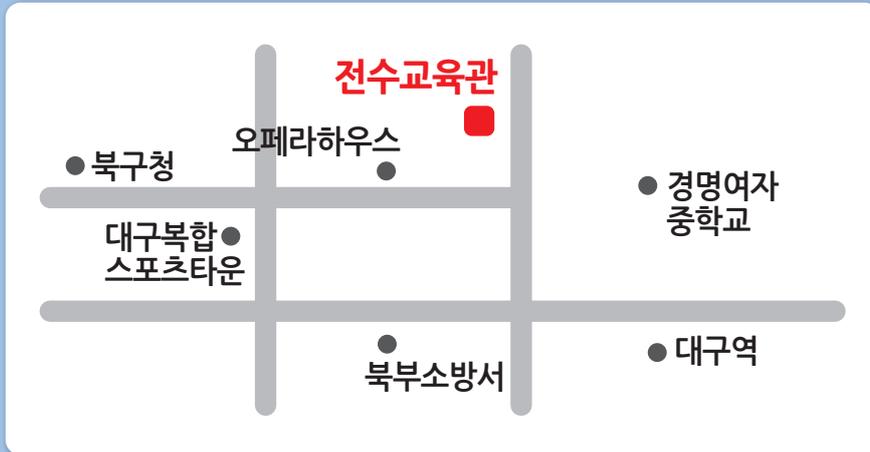


허경순



허화열

찾아오시는 길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103호
(대구광역시 북구 호암로 51 대구삼성창조경제단지내 기숙사 e동)

강습 장소

화요일 전수 교육관 202호
토, 일요일 대명동 영제시조 전수회관



대명동 영제시조 전수회관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534-3(앞산순환로 89길 22-19) / 전화 : 010-5502-8949)